

사업자 매출따라 주휴수당 차등지급 논의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광주 상인들과 간담회 가져 하나로마트 의무휴무제 검토... 소상공인들 경쟁력 갖춰야

정부가 사업자의 매출정도에 따라 주휴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과 함께 농협 하나로마트를 의무휴무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29일 광주 서구 양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 교육장에서 열린 '광주지역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사업자의 매출정도에 따라 주휴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이와 함께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공산품이 너무 많아 대형마트 의무휴무 대상에서 제외될 만한 명분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의무휴무제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지상인연합회가 요청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인 비서관 외에 김형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과 광주지역 소상공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인 비서관은 간담회에서 "대형마트에 맞서 전통시장도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 공간으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는 대한민국 정치의 민주화를 이룬 곳인 만큼, 경제분야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주체가 돼 경제 민주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최근 전통시장이 힘든 것은 정부의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 때문이기

도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자체적으로 극복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털어냈다. 문상식 양동시장상인연합회장은 "올해 8320원에 이어 오는 2020년 8590원으로 인상이 확정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가격이나 불경기인 요즘 인건비 문제로 내년 장사가 벌써부터 고민"이라며 "최저지급도 문제지만 주휴수당 지급도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벌그룹 복합 쇼핑몰의 골목 상권 침탈 행위를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문병남 대인시장상인연합회장은 "여름을 맞아 냉방·냉장 시설 사용이 증가하는데, 소상공인들에게는 전기세 누진세도 크나 큰 부담"이라며 "누진세 폐지를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및 노후전설 교체사업에 들어가는 상인들의 자부담 비율을 줄여줄 것도 요청했다.

또 다른 한 상인은 "현재 농협 하나로마트는 대형마트 의무휴무제에서 제외돼 있다"며 "하나로마트 또한 의무휴무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인 비서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소상공인이 최저지급을 지급할 수 있는



29일 광주 서구 양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 교육장에서 청와대 인태연 자영업비서관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간담회가 열렸다.

구조적인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소비자를 불러 모을 수 있는 아이템 개발에 힘써야 한다"며 "시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정부에 요청할 때 사업의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담아야 상권 르네상스를 이룰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장사가 안된다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장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휴수당과 관련해 인 비서관은 "사업자의 매출정도에 따라 주휴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자부담 비율 조정 문제와 주차 문제는

지자체와 상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공산품이 너무 많아 대형마트 의무휴무 대상에서 제외될 만한 명분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라며 "농협 하나로마트 또한 의무휴무제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30여 년간 자영업에 종사하며 한국 중소기업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을 지낸 인 비서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있다"며 "상인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현재 상황에 대한 자신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휴가 취소한 문 대통령, 日 경제보복 집중 대응 '백색국가 韓배제' 대책 마련...참모들도 휴가 축소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 취소 첫날인 29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조치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집무실로 정상 출근, 공식 일정을 비운 채 참모들로부터 앞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당초 계획했던 하계 휴가를 취소한 것은 일본이 다음 달 2일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개별 수출 품목에 대한 심사를 면제받았던 한국 기업은 일일이 품목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해당 조치는 한일 갈등 양상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다음 달 2일 태국에서 열리는 아

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나란히 참석, 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향후 사나흘이 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번 여름 휴가를 취소하기로 하면서 직원들의 예정된 하계휴가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지만 청와대 참모들도 자진해 휴가를 축소하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일본 수출규제 관련 현안을 보고하는 참모들도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분위기"라면서 "휴가를 갖던 참모들도 복귀 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日 수입 규제에 전남 기업들 고민 깊어져 농·수산물 규제 가능성...道, 간담회 갖고 현황파악 나서

일본의 한국제품 수입 규제에 따른 전남지역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 상반기 전남지역 수출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감소하는 등 글로벌 무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영향이 뚜렷한 상황에서 일본의 수입 규제가 현실화되면 타격이 심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에는 일본이 한국 농·수산물까지 수입 규제를 검토한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일본 수입 의존도가 큰 전남지역 수출 농·어·가축도 가슴을 졸이고 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남산 농·수산물의 일본 수출액은 6943만 2000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7369만 1000달러)에 견줘 5.8% 줄었다. 일부 감소하긴 했지만 전남산 농·수산물의 일본에 대한 수출 비중은 31.4%로 중국(18.6%), 미국(14.7%), 대만(10.9%), 베트남(6.0%) 등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전남산 농·수산물은 지난해에도 1억 4363만달러 어치가 일본으로 수출되면서 전남산 농·수산물 전체 수출액(3억 8911만달러)의 36.9%를 차지했다. 특히 전북 수출액은 전제적 감소세에도 상반기 1574만9000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1459만6000달러)보다 7.9% 늘어 나면서 어민들의 효자 수출 상품으로 떠

오른 상태. 어가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도 올 상반기 1308만 3000달러를 일본으로 수출했고 미역 1021만달러, 톳 842만6000달러 등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일본의 한국산 농·수산물 수입규제가 현실화되면 일본 의존도가 높은 전북·김·미역·톳·파프리카 생산 농·어가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만 해도 파프리카는 전체 수출물량(840만달러)의 대부분인 98%(828만 4000달러)를 일본에 팔았고, 톳도 수출물량의 94%를 일본으로 보냈다. 미역·전복·김치 수출물량의 일본 비중도 각각 82%·78%·68%에 달해 이들 품목 수출 농·어가도 피해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다.

공산품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 상반기 일본에 대한 전남지역 수출액은 철강·석유제품 수출 증가 등으로 13억 2200만달러를 기록,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전남도는 이처럼 일본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전남지역 기업들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도내 일본 수출기업 480여개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현황 파악에 나서는 등 추격을 근두 세우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日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출범 여야 5당, 31일 첫 회의 개최 '국민 뜻 모을 것'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초당적 기구인 '민관정 협의회'가 오는 31일 출범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자유한국당 박맹우·바른미래당 임재훈·민주평화당 김광수·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은 29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31일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민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7명이 협의회에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여한다.

여야 5당에서는 각기 1명씩 참여한다. 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한국당은 정진석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바른미래당은 채이배 정책위의장, 정의당은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각각 참여하고, 평화당은 당내 논의를 거쳐 참여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협의회 구성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일본 각의에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안건이 올라가기 전에 협의회가 출범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여야가 초당적, 거국적으로 일본 경제협력에 대응해나간다는 차원에서 구성된 기구다. 어떤 결정이 이뤄진다든 금상첨화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국민의 뜻을 모으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협의회가 출범하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부품 국산화 관련 규제를 푸는 데 속도를 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일본경제협력특별위원회는 이날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 지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5당 사무총장들이 2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실에서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초당적 비상협력기구 구성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임재훈, 자유한국당 박맹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민주평화당 김광수,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 /연합뉴스

특위 오기형 간사는 이날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품·소재·장비와 관련한 기업지원법,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해서 야당과 협의해 제도적 보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간사는 또 일본이 내달 2일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아베 정부가 처음 도발할 때부터는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상황인식을 하면서 고민하는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내달 2일 이후로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경매

단독/공동투자 하실분
(주)오천경매, 010-3605-5000

- ▶ 엔피엘(NPL)과 특수물건 채권
- ▶ 입찰할/낙찰된 경매물건
- ▶ 소유권/근저당으로 채권보장
- ▶ 현금 5억원이상 가능한 분

장성토지매매!!

- 4층,30평Apt50채 건축부지 <1가구 전원주택지로 최고>
- 지번 :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648-1, 2 및 38,나대지
- 면적 : 3,646㎡(1,104평) 읍에서 5분거리
- 환경
좌측 : 바로 옆이티치드 편백숲, 꿈의산책길·오솔길
우측 : 대형블루베리농장·환상의캠핑장·맛집
- 감정가 : 8.8억(평당 80만원)
- 매매가 : 7.7억여원(평당70만원)
- 상·하수도, 도시가스 인입 가능

문의 010-3602-3881(주인)

임야

문중산/지분물건 환영
바로합니다.010-6834-740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시골집 원도군 정산면 대지 440㎡ 주택 52㎡ 조용한생활 최적 4800만원
- 장성군 삼계면 능성리 231㎡ 블루베리 500여구 식재 8500만원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80㎡ 목포대항 인근 4600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주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투자·매도·교환

- 원도군 원도읍 산 자면역지 3306㎡ 전망좋은 사할적합 5000만원
- 월산동 다구리 대지 188㎡ 주택 177㎡ 방 10실 전세 800월 150 임대 은행 3천 매도 2억6천
- 곡성군 입면 매월리 임야·전 24056㎡ 농장·귀농생활 적합 9천만원
- 남구 월산동 소봉도 상가주택 대지 104㎡ 건평 98㎡ 공실임 1억2천
- 함평 손불면 산남리 전 8588㎡ 귀농생활적합 2억6500
- 별장·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명산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택 4억4천

상가건물

- 나주 혁신도시 중심지 3층 193㎡ 분양 4억9천 은행 2억5천 매도·교환 5억
- 대인동 버스도막 709㎡ 건평 810㎡ 사육 등 적합 공시지가 13억7천 매도 26억
- 담양동 버스도막 5층건물 대지 301㎡ 건평 997㎡ 임대생활적합 8억2천
- 능성동 새 원룸건물 대지 343㎡ 건평 712㎡ 1층 가게는 공실 17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목포대 인근 무안청계 2층 주거지 담 4413㎡ 축적 2억4천 투자에 좋음 4억4천
- 신안군 암태면 부두서 배로 10분 독립성 56233㎡ 독립생활적합 3억6천
- 담양군 대덕면 집총지 8451㎡ 도로연결 좋은 물류창고 등 다양도 8억(은행4억5천)
- 신안 암태면 천사대교에서 15분 53397㎡ 중계관리지역 70%선 다용도 개발 5억6천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다용도 개발 적합 은행 3억5천 매도 13억
- 광안구 덕림동 계획관리지역중심 29144㎡ 다양도 투자에도 양호 10억8천
- 담양군 월산면 월평리 전원주택단지 적합 27215㎡ 광주서 30분거리 13억2천
- 나주시 금천면 명산강부근 땅 26334㎡ 전원주택형 빌라 등 복합 29억
- 영암군 학산면 명산강접 산 97404㎡ 감정 8억4천선 하자 5억8천 매도 3천
- 나주시 다시면 광곡간도로 4323㎡ 유통시설·청고 등 복합 6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 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